

2014.
9. 13 (토)
|
9. 14 (일)

서울 북촌 일대

안국역 주변 감고당길과
한옥, 갤러리 외

**BUKCHON
MUSIC
FESTIVAL
2014**

Around Bukchon
Jongno-gu, Seoul

북촌뮤직페스티벌

아티스트(ARTIST)

강태환
박경소
햇산 후자이리
주리스쿤스
가다프로젝트(김보람, 이은경)
마푸키키
쿠이도(feat. 부뚜막, 소나기프로젝트)
이즈미 카야 with 타가와 후미히코
브라질리언 재즈밴드 수플라스
4인놀이
그 외 음악, 무용, 전시

공연장(VENUE)

W스태이지
갤러리 아트링크
소리울 게스트하우스
57h 갤러리
북촌민예관
카페 오감
감고당길
달소정
갤러리 담
정독도서관 트랙
국악사랑

티켓(TICKET)

전 공연 무료 관람

문의(INQUIRY)

02.2075.7911
bukchonmf@gmail.com
www.bukchonmf.or.kr
www.facebook.com/bukchonmf

홍보영상(PROMO VIDEO)



주최 **수림문화재단**
SOUL CULTURAL FOUNDATION

주관 북촌뮤직페스티벌 기획단



| | | |
|---|--------------|--|
|  <p>북촌뮤직 페스티벌 BUKCHON MUSIC FESTIVAL 2014 2014. 9. 13(토)~14(일)</p> | 내용 | 표지 포함 총 27장 |
| | 공연문의 | 홍보팀장 이정화 010-2581-5932 bmf2014@naver.com |
| | 사이트 | 홈페이지 www.bukchonmf.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kchonmf |
| | 보도자료 다운로드 | www.webhard.co.kr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 폴더 (ID: bukchonmf / PW: 20132013) |

음악이 있는 북촌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국악, 라틴, 아프로, 재즈, 클래식, 각양각색 인디음악 등 **다양한 음악**과
무용, 전통연희, 인형극, 복합장르 퍼포먼스, 전시, 투어까지 다채로운 코스를
한옥게스트하우스, 갤러리, 공방, 정독도서관 뜰, 카페, 골목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즐기는

이틀간의 **여행 같은 축제, 축제 같은 여행**

일찌감치 찾아온 추석연휴 다음 주말인 9 월 13, 14 일 양일간 북촌에서 연휴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줄 축제가 펼쳐진다.

재단법인 수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에서는 전통부터 실험적인 작품까지, 국악, 재즈, 월드뮤직, 클래식 등 여러 장르 음악을 비롯해 무용, 극, 퍼포먼스, 전시 등 다양한 분야 40 여개 팀의 예술가들이 북촌 곳곳에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선보인다. 이틀간의 짧지만 풍성한 축제에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공간과 젊은 예술가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는 북촌을 만날 수 있다.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은 전 공연 무료로 진행되지만 관람편의를 위해 8 월 말까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1. 북촌은 예술가에게 문 열고, 예술가는 관객에 색다른 감동 선사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 가 열리는 대부분의 공간은 공간을 운영하는 북촌의 주민들과 기관의 협력으로 **무상으로 예술가에게 개방**된다. 거리를 제외하고는 30 명에서 최대 100 명 남짓 수용이 가능한 북촌의 한옥, 갤러리, 공방 등 다양한 모양새의 아담한 공간들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풍성한 음향과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오롯이 자신들의 작품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한다. 이처럼 10 여 개 공간에서 40 여 개 작품이 무료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전통부터 실험까지, 국악에서 세계음악까지 선보여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 에서는 전통부터 프리뮤직, 무용, 전시, 실험적 퍼포먼스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공연들과, 정통 및 창작 국악부터 **브라질리언 재즈밴드 수플러스, 아프로퍼커션 그룹 쿠아도, 하와이언 멜레 트리오 마푸키키, 바레인 출신으로 아랍전통악기 우드 연주자 핫산 후자이리, 서울기타콰르텟의 피아졸라(탱고)** 연주까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세계의 다채로운 음악들을 즐길 수 있다.

3. 북촌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연주하는 공연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북촌뮤직페스티벌>의 가장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연의 기획자, 또는 연주자로 참가한다는 것. 좁은 골목길 안에 자리한 한옥 **담소정**(대표 조현정)은 하우스콘서트를 기획하고 한국과 일본의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클래식과 일본 전통음악이 한옥 마당에서 선보이는데, 기획과 섭외 등 일체의 과정을 담소정에서 진행한다. 또, 우리음악 교육과 국악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국악체험공방 국악사랑**에서는, 북촌 주민이자 국악을 전공하는 국악도인 박다울(거문고/서울대 4), 찬울(대금/서울대 1), 산울(피리/국립전통예고) 삼 형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한 공방 마당에서 연주자로 관객들을 만난다.

4. 뛰어난 솔리스트들, 그리고 만남

특별 초청된 색소폰 연주자 강태환을 비롯해, 가야금연주자로서 전통과 실험을 오가는 박경소, 바레인 출신 우드연주자 겸 사운드아티스트인 핫산 후자이리, 스타 춤꾼 김보람 등 뛰어난 솔리스트들의 참가가 돋보인다.

이번 축제에서 이들의 솔로 공연은 물론, 강태환은 대금 주자와, 박경소는 전시작가와 함께하며 김보람은 다른 젊은 춤꾼 이은경과 함께 가다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팀을 결성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5. 새로운 길 찾는 전통음악의 프론티어들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 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는 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전통음악분야의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다. **가야금연주자 박경소, 전통과 현대성을 모두 녹여낸 새로운 시대의 4 인놀이, 주목 받는 창작그룹 반(Vann), 한예종 출신으로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8 인조 불세출의 새로운 유닛 불세출밴드, 그리고 가야금 3 중주단 마루와 퓨전그룹 월천**까지 젊은 음악인들은 전통의 틀을 깨고 개성 있고 완성도 높은 음악세계를 선보인다.

6. 취향대로 골라보는 공연들

- 어쿠스틱이라 더 좋다

14 일 일요일 카페 오감에서는 서울기타과르텟, 크로스오버밴드 앵드아가, 소리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가야금 3 중주단 마루가 음향 없이 악기 본연의 음색으로 편안한 연주를 들려준다. 국악사랑의 공연(피리, 거문고, 대금)도 어쿠스틱.

- 스페셜 거리무대 : 토요일 6 시 재즈스페셜 / 일요일 5 시 한국-아프로-라틴 퍼커션 콜라보

거리 무대에서는 토요일 오후에는 소울로지, 최윤미트리오 등 실력과 재즈밴드가 북촌의 거리를 재즈로 가득 채우고, 일요일 오후에는 쿠아도가 선보이는 아프리카 음악과 함께 한국, 아프로, 라틴 퍼커션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그 외에도 풍문여고 앞 감고당길 거리에서는 버스킹, 국악아카펠라, 인형극 등 작은 거리음악의 축제가 열린다.

- 정독뜨락콘서트 <마푸키키 - 훌라 한번 출래요?>

토요일 오후 5 시 정독도서관 뜨락에서 열리는 "정독뜨락콘서트"는 하와이 멜레 트리오 마푸키키가 하와이의 훌라춤 그리고 우쿨렐레 연주가 매력적인 하와이 음악과 함께 최근 멤버 이동걸이 쓴 하와이 여행에세이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전시 및 투어

그 외에도 한혜민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1 인극 <아코> , 도토리의 인형극 <몽이다> , 착한밴드 이든의 따뜻한 공연이나, 한옥보전활동으로 유명한 로버트 파우저(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와 함께 하는 북촌투어 및 좌담회, 그리고 그의 한옥사진전, 영수증공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온 관객들이 참여해보면 좋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전통 문화 예술의 육성, 인재 양성, 한일 문화 교류 등 국제 교류에 앞장서는 수림문화재단(이사장 하정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로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월드컬처오픈 코리아가 후원합니다.

※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의 일부 공연장과 공연에서는 음향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람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야금 3 중주단 마루의 <한국에서 듣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리울 게스트하우스_한옥)

서울기타과르텟 / 앵드아 / 한혜민 (카페 오감),

<국악사랑 가족음악회> (국악체험공방 국악사랑)

※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의 대부분의 공연장은, 거리를 제외하고는 30 명에서 최대 100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람 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축제는 지역의 특성 상 행사 운영을 위한 일부차량 외에 관객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 제공 및 관리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인터뷰 안내

- 수림문화재단 관계자 : 하정웅 이사장 외
- 북촌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 장재효
- 참가 공간 및 아티스트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 일정표

2014년 9월 13일 (토) 공연 일정

| | 감고당길1 (거리) | 감고당길2 (무대) | W스테이지 | 아트링크 | 57 TH 갤러리 | 소리음 캐스트하우스 | 갤러리 담 | 청독도서관 | 담소정 | 국악체험공방 |
|------|---------------|----------------------------------|--------------|--------|----------------------|----------------|-----------|-------|---|-----------------|
| 1200 | | | | | | | | | | |
| 1300 | 전통악기그룹 유소 | | | | | | | | | |
| 1330 | | 타니모션 | | | | | | | | |
| 1400 | | | | | | | 마루 도토리 | | | |
| 1430 | 크루크노튼 | | | | | | | | | |
| 1500 | | 아름다운프로젝트 KAN | | 가다프로젝트 | | 북촌투어 | | | | |
| 1530 | 투스토리 | | | | | | | | | |
| 1600 | | 유랑 | | | | <토크> 로버트파우저 | | | <담소정 리우스콘서트> 이즈미키야 with 타가와 후미리코, 한상블마즈 | |
| 1630 | | | | | | | | | | |
| 1700 | 프로젝트 글 S | | | | | 마루 | | 마루키키 | | |
| 1730 | | | | | | | | | | |
| 1800 | | | | | | | | | | |
| 1830 | | <Jazz Special> 최준미트리오 소울로지 | | | 박경소 | | | | | <국악사랑 가족음악회> |
| 1900 | | | | The광대 | | | | | | |
| 1930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2030 | | | 주리스콘스 강태환 | | | | | | | |
| 2100 | | | | | | | | | | |
| 2130 | | | | | | | | | | |
| 2200 | | | | | | | | | | |

2014년 9월 14일 (일) 공연 일정

| | 감고당길1 (거리) | 감고당길2 (무대) | W스테이지 | 아트링크 | 57 TH 갤러리 | 북촌민예관 | 카페오감 |
|-------|---------------|--|-----------|---------|----------------------|-------|-------------|
| 11:00 | | | | | | | |
| 11:30 | | | | | | | |
| 12:00 | | 마네트,상사화 | 한국음악그룹 율현 | | | | |
| 12:30 | 한해민 | | | | | | |
| 13:00 | | | | | | | |
| 13:30 | 도도 | | | | | | |
| 14:00 | | 작한밴드 이든 | 이노경&이상화 | | | | |
| 14:30 | 아카펠라 수 | | | | | | |
| 15:00 | | 협수면상대의 밴드 | | 한산 후자이리 | | 김선호 | 양드아 |
| 15:30 | 멜로우워크 | | | | | | 한해민 |
| 16:00 | | 달고비올라 | | | | | 서울 기타리스트 |
| 16:30 | 레이디버드 | | | | | | |
| 17:00 | | | 윤아성호 | 늘 세울 밴드 | | Vann | |
| 17:30 | | <아프론-라틴-한 파커션 클라보> 쿠아도 feat. 부루 탁, 스나기 프로젝트 | | | | | |
| 18:00 | | | 수플러스 | | 가인 | | |
| 18:30 | | | | | | | |
| 19:00 | | | | | | | |
| 19:30 | | | | 4인놀이 | | | |
| 20:00 | | | | | | | |

참가아티스트 및 작품 소개

강태환(알토색소폰)_9. 13. 토요일 21:00, W 스테이지



독창적인 음악세계와 탁월한 연주력으로 세계 3대 프리뮤직 색소포니스트(Saxophonist)로 평가 받는 '한국 프리뮤직의 대부' 강태환. 2011년 발표된 <소래화> 앨범 수록곡을 비롯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구도(求道)와 같은 그의 명연주를 가까이서 접하는 특별한 자리다. 제자 이현석과 함께하는 듀오 연주도 선보인다.

협연 : 이현석(대금, 소프라노색소폰)

박경소(가야금) <평행, 아름다운 그의 존재>_9. 13. 토요일 18:00, 57th 갤러리



솔리스트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일원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즉흥, 실험, 재즈, 전자,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연주자 겸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박경소의 솔로작업의 일환으로 회화작가 박성수, 연출가 김태린과의 협업을 통해 '평행'을 화두로 지금의 우리를 그려본다.

게스트 : 윤여주(타악)

한산 후자이리(전자우드)_9. 14. 일요일 15:00, 갤러리 아트링크



바레인 출신으로 중동지역의 현악기인 우드(Oud) 연주자 겸 작곡가, 사운드아티스트로 현재 서울대학교 레지던스 아티스트이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국악 연구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창작,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사운드와 우드 연주로 아시아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4인놀이<모던타임즈>_9. 14. 일요일 19:00, 갤러리 아트링크



4인놀이는 뛰어난 연주기량과 창작력을 겸비한 아쟁, 대금, 해금, 거문고 주자가 '음악으로 놀아보자' 하여 구성된 즉흥한국음악집단. 네 가지의 주력 악기를 중심에 두되 타악기와 소리에 이르기까지 악기의 틀에 구애 받지 않고 연주한다. 스스로 작곡가이면서 연주자이고, 관객이 되는 4인놀이는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교감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 모두 자유로우면서도 절제된 삶의 철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주리스쿤스<패시지>_9. 13. 토요일 20:00, W 스테이지



해금 연주자 김주리를 축으로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장구, 퍼커션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한국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일렉트릭 사운드와 결합된 참신한 음악으로 지난해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에서 수림문화상을 수상했다.

아시안뮤직앙상블(A.M.E.)<초원의 신기루>_9. 12. 금요일 19:00, 갤러리 아트링크 / 전야제



최근 파리 에펠탑 앞에서 아리랑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한 아시안뮤직앙상블은 베트남의 단보우, 몽골의 여칭, 호치르 그리고 한국의 대금, 아쟁, 장구로 구성된 다국적, 다문화 연주단체이다. 한국의 장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결합해 재탄생 시킨 그들만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마푸키키<홀라 한번 출래요?>_9. 13. 토요일 17:00, 정독도서관 트락



<정독트락콘서트>

세 명의 실력과 아티스트 조태준, 이동걸, 김영진으로 구성된 하와이 멜레 트리오 마푸키키(Māpukiki)는 지난 6월 데뷔앨범 "Shall We Hula" 발표했다. 하와이 전통음악에 팝이 가미된 유쾌하고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9월 발간되는 이동걸의 하와이 여행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가 더해진다.

쿠아도(feat. 부뚜막, 소나기프로젝트)_9. 14. 일요일 17:00, 감고당길 2



아프리카의 전통음악과 우리음악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해온 연주단체로, 이번 공연에는 서아프리카 기니(GUNEA)의 국립 연주단 쟌베 솔리스트인 '방갈리 반구라(Bangaly Bangoura)'와 현지의 전문 댄서가 공연에 참가해 아프리카 리듬과 춤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게스트 : 부뚜막 (장재효/한국전통타악, 조재범/라틴퍼커션, 한충은/대금), 소나기프로젝트

반(Vann)<새로운 소리로 흐르다>_9. 14. 일요일 17:00, 북촌민예관



한국전통음악을 깊이 경험하고 다양한 음악에 빠진 세 명의 연주자들(윤현중, 김시울, 김예술)이 우리 고유의 음악적 감성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팀 이름(Vann 은 노르웨이어로 물)처럼 물과 같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지난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정가, 경기민요 소리꾼과 건반주자가 참여해 최근 작업한 연극음악 등을 선보인다.

가민<가민, 프로젝트1-독백>_9. 14. 일요일 18:00, 57th 갤러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악기 연주자이며 전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 가민은 피리와 생황, 태평소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방위 예술가이다. 가민의 "모놀로그" 시리즈는 그녀가 걸어가는 음악과 인생의 길로서, 음악의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깨달음을 찾으려는 음악가의 순례의 길인 동시에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타니모션<빙글빙글 in 북촌>_9. 13. 토요일 13:30, 감고당길2



타니모션은 이름 그대로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애절한 음악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밴드이다. 아쟁, 피리, 생황, 태평소 등 국악기와 드럼, 건반, 아코디언 등 서양악기의 독특한 편성으로 북촌에서 소박하고 진하게 선보일 <빙글빙글 in 북촌>은 북촌의 독특한 정취에 갖의 애잔하고도 신나는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담소정 하우스콘서트] _9. 13. 토요일 16:00, 담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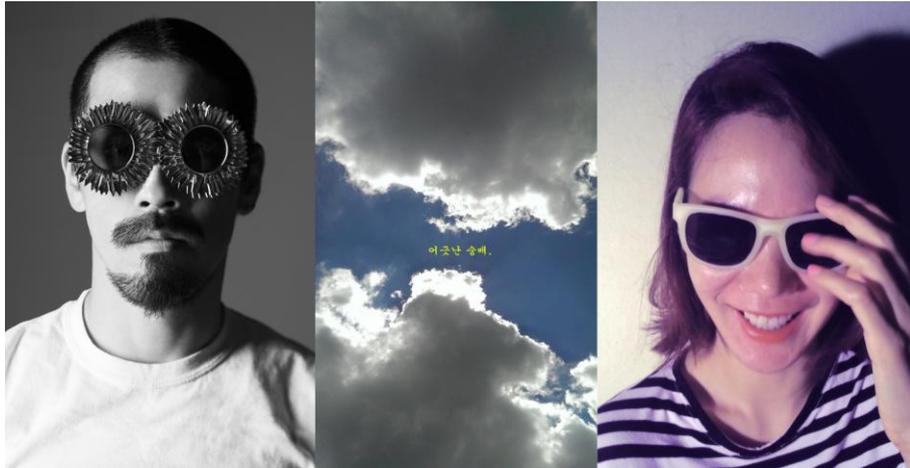
이즈미 카야 with 타가와 후미히코

몇 해 전 담소정에 묵었던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 연주자 '이즈미 카야'와 공연프로듀서로 활동해온 담소정의 주인 조현정 대표가 '한번 연주하자'는 약속을 지켜냈다. 동경예술대 출신의 피아니스트 타가와 후미히코(Fumihiko Tagawa)가 함께 연주한다. 이 공연은 담소정이 기획, 협력 진행한다.

양상블 마즈

양상블 마즈는 아랍어로 '화합'이란 뜻의 팀으로 단원간의 화합, 나아가 관객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를 꿈꾸는 피아노 콰르텟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객원 성악가 이미람의 목소리가 더해져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담소정이 기획, 협력 진행한다.

가다프로젝트<어긋난 송배>_9. 13. 토요일 15:00, 갤러리 아트링크



'가다프로젝트'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김보람'과 유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이은경'이 만나 진행하는 공동작업 프로젝트이다. '어긋난 송배' 는 가다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 지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기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빌어주는 현대인을 위한 "NEW" 강강술래이다.

*본 작품은 국립현대무용단 2014 <전통의 재발견전>에 의해 제작, 초연됨.

소울로지<북촌 Jazz It Up!>_9. 13. 토요일 18:00, 감고당길2



컨템포러리 재즈그룹 소울로지(Soulloge)는 재치 있는 음악과 즉흥성을 최대한 존중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출중한 연주력을 기본으로 신나는 액팅과 퍼포먼스를 곁들여 누구나 재즈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 | |
|---|--|
| <p>불세출밴드</p> | <p><아웃스트림> 9. 14. 일요일 17:00, 갤러리 아트링크</p> |
|  | <p>악기의 구성을 간소화하여 장르 간 교배, 독특한 음악적 소재 발굴, 사운드 실험 등을 통해 해석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불세출밴드. 전통음악 안에서 주목 받지 않은 소재를 찾아내고 사람들의 일상에 BGM 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음악으로 만날 수 있다.</p> |
| <p>김선호</p> | <p><거문고, 여백과 여운을 연주하다> 9. 14. 일요일 15:00, 북촌민예관</p> |
|  | <p>이번 공연은 거문고를 새롭게 표현한 공연이 될 것이며 곡마다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거문고의 주법과 표현방식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거문고 연주에 베이스 역할로써 힘을 실어주기 위해 더블베이스 연주자 김원술이 공연에 참여해 거문고의 멜로디 라인에 웅장하면서도 묵직한 베이스 연주로 이번 공연에 깊이를 더해 줄 예정이다.</p> |
| <p>서울기타콰르텟</p> | <p><해피콘서트: 피아졸라 and more> 9. 14. 일요일 16:00, 카페 오감</p> |
|  | <p>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기타 4 중주단으로 1999 년 7 월 결성 이래 현재까지 매년 30 여 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연주할 피아졸라와 클래식은 물론 국악, 영화음악, 재즈, 가스펠 등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8 월, 정규 4 집 앨범 <Moiré(물결무늬)>를 발표했다.</p> |
| <p>브라질리언 재즈밴드 수플러스</p> | <p><북촌에서 브라질리언 재즈를> 9. 14. 일요일 18:00, W스테이지</p> |
|  | <p>계획 없이 떠난 낯선 여행지의 신선한 아름다움이 이듬해 결국 같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음 앨범을 기대하게 만드는 브라질리언 재즈밴드 '수플러스(Souplus)' 재즈신의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된 수플러스의 이번 공연은 브라질리언 음악을 소개하고, 청중들이 간단한 리듬을 배워 연주자와 관객이 같이 호흡하는 자리로 마련된다.</p> |

| | |
|---|--|
| <p>마루</p> | <p><한옥에서 듣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 회 9. 13. 토요일 14:00, 갤러리 담 2 회 9. 13. 토요일 17:00, 소리울 게스트하우스</p> |
|  | <p>'마루'는 올해 창단 20 주년을 맞은, 한국음악 창작과 전통가야금을 연구해온 한국음악발전연구원 소속 연주자들로 구성된 가야금 3 중주단. 이번 공연은 전통적인 한국음악어법에 따라 한국의 자연과 정신을 담은 음악을 전통악기 본연의 소리로 가까이서 들음으로써 우리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p> |
| <p>연희집단 The 광대</p> | <p>별곡(別曲) 9. 13. 토요일 19:00, 갤러리 아트링크</p> |
|  | <p>다양한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현대적 창작 연희를 만드는 '전통연희프리즘프로젝트'을 진행해가고 있는 젊은 예인집단. 신선한 예술적 감각에 특유의 익살이 더해져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담·기예 위주의 기존작품들과 달리 굿의 연희요소 중 음악에 중심을 두고 경기도당굿과 진도 씻김굿을 재해석해 작곡·연출한 작품을 통해 '음악으로서 굿'을 조명한다.</p> |
| <p>국악 아카펠라 수(秀)</p> | <p><북촌, 소리로 물들다> 9. 14. 일요일 14:30, 감고당길 1</p> |
|  | <p>판소리와 민요의 선법, 시김새를 중점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들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 서정적인 감성과 순수한 목소리로 북촌의 거리를 소리로 물들일 것이다.</p> |
| <p>마네트, 상사화</p> | <p><인형들의 한마당, 얼씨구!> 9. 14. 일요일 12:00, 감고당길2</p> |
|  | <p>마음을 모태로 하는 '마네트'와 전통적 소재와 정서를 바탕으로 인형극, 무용, 전통연희 등을 다양하게 융합시킨 '극단 상사화' 두 단체가 만나 우리 멋과 정서를 아름다운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인형 판타지 무용극을 선보인다.</p> |

| | |
|---|---|
| <p>도도</p> | <p><가을에 말하는 이야기들> 9. 14. 일요일 13:30, 감고당길 1</p> |
|  | <p>보컬 YeA 와 작곡가 동훈으로 구성된 어쿠스틱 듀오로 20 대의 사랑과 이별 등을 담은 포크, 인디, 모던락 장르의 서정적인 자작곡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p> |
| <p>도토리</p> | <p><몽이다> 9. 13. 토요일 14:00, 갤러리 담</p> |
|  | <p>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도토리는 가방 속 인형극 '몽이다'를 통해 주인공 몽이가 모습을 바꿔 삶을 살아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에 대해 깨닫고 꿈을 꾸는 일 자체로 행복해진다는 행복의 비결을 전한다.</p> |
| <p>땅고 비올레</p> | <p><땅고 비올레, 북촌을 만나다> 9. 14. 일요일 16:00, 감고당길 2</p> |
|  | <p>땅고 비올레(Tango Violet)는 프렌치 음악을 지향하는 팀으로 탱고, 왈츠, 보사노바 등의 라틴음악 장르들을 사랑이란 테마에 함께 연주한다. 불어로 Tango 는 강렬한 주황색, Violet 은 관능적인 보라색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색을 통해 정열적이지만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다.</p> |
| <p>레이디버드</p> | <p>9. 14. 일요일 16:30, 감고당길1</p> |
|  | <p>그림 같은 음악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레이디버드'. 보컬과 피아노로 이루어진 레이디버드만의 건조하면서도 촉촉한, 차가운 듯 따뜻한 묘한 감성 위에 싱어송라이터 '대현'의 매력적인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다.</p> |

| | |
|---|---|
| <p>렘수면상태의 밴드</p> | <p><가을 소풍> 9. 14. 일요일 15:00, 감고당길 2</p> |
|  | <p>소규모 어쿠스틱 밴드로 자작과 다양한 보사노바 연주를 추구하는 밴드 '렘수면상태의 밴드'. 라이브 공연 시에는 객원 퍼커션과 함께해서 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스탠다드 넘버와 팝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간 해온 음악과는 다른 색깔연주를 시도하며 활동하고 있는 '렘수면상태의 밴드'는 <가을 소풍>을 통해 자신들의 자작곡과 오래된 팝을 커버해서 선보일 예정이다.</p> |
| <p>멜로우위크</p> | <p>청춘 (청춘의 춤) 9. 14. 일요일 15:30, 감고당길 1</p> |
|  | <p>서로 다른 일상을 보내던 여성 싱어송라이터 '멜로우위크'의 작곡가 3 명이 만나 다양한 감성으로 풀어나가는 시시콜콜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들을 음악을 통해 풀어낸다. 이름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음악을 전하는 밴드 '멜로우위크'는 '청춘의 춤'이라는 주제로 맘껏 빛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청춘을 위한 곡을 선보인다.</p> |
| <p>아토음악프로젝트 칸</p> | <p><바시타라> 9. 13. 토요일 15:00, 감고당길2</p> |
|  | <p>서아프리카어로 소리를 의미하는 '칸(KAN)' 은 아프리카 악기와 리듬을 기반으로 다국적 악기와의 협연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아프리카 음악을 제시한다. '바시타라(Basitara)'는 곡마다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아프리카의 리듬을 연주하며 얻을 수 있는 사운드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작품은 아프리카 리듬을 기반으로 국악기(가야금, 썩과리)와 서양악기(바이올린)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선보인다.</p> |

| | |
|---|---|
| <p>앵드아</p> | <p><황조가 : 시를 통한 퓨전국악 여행> 9. 14. 일요일 15:00, 카페 오감</p> |
|  | <p>기타와 해금 판소리의 조합으로 특유의 어쿠스틱 감성을 통해 솔직담백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퓨전국악밴드이다. 우리 음악을 소재로 하여 '시대를 담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 공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품을 구성했다.</p> |
| <p>유랑</p> | <p><한국인이 연주하는 컨트리뮤직 쇼> 9. 13. 토요일 16:00, 감고당길 2</p> |
|  | <p>국내 유일의 컨트리뮤직 밴드 유랑은 컨트리뮤직 본연의 느낌을 살리면서 동시에 한국적 정서를 융합하여 재탄생한 유랑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컨트리뮤직으로 북촌 거리를 들썩이게 한다.</p> |
| <p>전통창작타악그룹 유소</p> | <p><버나 in 판굿> 9. 13. 토요일 13:00, 감고당길 1</p> |
|  | <p>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 음악의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의 전통창작타악그룹 "유소". 신명 나는 두드림과 소고놀이, 판 굿, 버나놀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버나 in 판굿'으로 관객 들을 만난다.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음악어법을 조합하여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 감동을 선사할 유소의 신명 나는 놀이판을 북촌에서 볼 수 있다.</p> |
| <p>윤아성호</p> | <p><해질녘 노을을 본적 있나요?> 9. 14. 일요일 17:00, W 스테이지</p> |
|  | <p>비브라폰 연주자 장성호와 피아니스트 한윤아가 만난 재즈듀오이다. '윤아성호'는 흔히 볼 수 없는 비브라폰으로 재즈를 연주하며 비브라폰과 피아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자작곡을 연주한다.</p> |

| | |
|---|---|
| <p>이노경 & 이상화</p> | <p><판소리와 피아노를 위한 노래> 9. 14. 일요일 14:00, W 스테이지</p> |
|  | <p>피아니스트이자 작곡, 편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노경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5 호 김세종제 '춘향가' 이수자, 소리꾼 이상화가 만나 재즈피아노와 우리 소리의 조화를 이룬다. 판소리에 새로운 화성적, 리듬적 시도를 구사하며 클래식 보컬 반주의 컨셉과 재즈의 즉흥성을 피아노 연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대화한 연주를 선보인다.</p> |
| <p>착한밴드 이든</p> | <p><이든과 함께하는 '휴식 콘서트'> 9. 14. 일요일 14:00, 감고당길 2</p> |
|  | <p>착한밴드 이든의 자연주의 어쿠스틱 음악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사한다. 음악을 통해 따스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자 소망인 착한밴드 이든의 음악을 북촌에서 만날 수 있다.</p> |
| <p>최윤미트리오</p> | <p><7 일> 9. 13. 토요일 18:00, 감고당길 2</p> |
|  | <p>유리피안 음악 컬러를 베이스로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사운드를 지닌 최윤미트리오는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클래식과 재즈가 합쳐진 컨템포러리 재즈를 선보인다.</p> |
| <p>크로크노트</p> | <p><너에게 닿기를> 9. 13. 토요일 14:30, 감고당길 1</p> |
|  | <p>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서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하고자 진심을 담아 곡을 쓰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승은의 원맨밴드 크로크노트(Croque-note)는 프랑스어로 '서투른 음악가'라는 뜻이다.</p> |

| | |
|---|--|
| <p>투스토리</p> | <p>9. 13. 토요일 15:30, 감고당길 1</p> |
|  | <p>'투스토리(2story)'는 고층도 지하도 아닌 2층 건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여유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한다. 미몽의 기타 강예진의 감성어린 보컬과 권지영의 섬세한 바이얼린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p> |
| <p>프로젝트 곧사</p> | <p><소설> 9. 13. 토요일 17:00, 감고당길 1</p> |
|  | <p>가까운 곳에서의 소통, 가까운 곳부터의 소통을 꿈꾸는 '프로젝트 곧사'는 유동적이고 돌발적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형지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리의 몸과 공간의 에너지를 호흡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들여다본다. 그 가운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호흡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p> |
| <p>한국음악그룹 월천</p> | <p><바람과 바다> 9. 14. 일요일 12:00, W 스테이지</p> |
|  | <p>월천은 '하늘에 퍼트리다'라는 팀의 이름대로 한국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하며, 국악과 서양음악 연주자들이 모여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음악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오늘의 우리음악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젊은 한국음악그룹이다.</p> |
| <p>한혜민</p> | <p><이야기음악극 : 아코> 9. 14. 일요일 12:30, 감고당길 1</p> |
|  | <p>한혜민의 '아코'는 왕코가 콤플렉스인 아코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갖고 있는 콤플렉스와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1 인극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라이브 아코디언연주와 오브제를 통해 그림책처럼 이야기를 풀어낸다.</p> |

| | |
|---|---|
| <p>국악사랑 가족음악회</p> | <p>9. 13. 토요일 18:00, 국악체험공방 국악사랑</p> |
|  | <p>북촌에서 국악 교육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국악체험공방 '국악사랑'의 삼형제 박다울(거문고/서울대 4), 찬울(대금/서울대 1), 산울(피리/국립전통예고)의 연주회. 북촌의 세 청년이 자신들이 자신의 집을 찾은 손님에게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p> |

[북촌투어와 좌담회, 북촌에서 만나다]

| | |
|--|--|
| <p>로버트 파우저 '마을, 골목, 그리고 한옥'</p> | |
|  | |
| <p>한옥 보전 활동 및 체부동 '어락당'으로 알려진 로버트 파우저(Robert Fouser) 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와 함께 하는 북촌답사와 좌담회에서 우리도 몰랐던 우리 마을과 골목길, 한옥의 매력을 발견하며 북촌을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본다.</p> | |
| <p>◎ 로버트 파우저(Robert Fouser) : 미국 미시간대에서 동양어문학 학사, 언어학 석사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교토대를 거쳐 지난 8월까지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재직</p> | |
| <p>생각하며 걷는 북촌 산책. 파우저 교수와 함께 북촌의 여러 경관을 보면서 북촌의 역사, 변화,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여러 한옥을 보면서 20세기 '도시형 한옥'의 발생 및 변화를 살펴보고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옥 보전 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함께 생각한다.</p> | |
| <p>* 코스 : 집결 안국역 3번 출구 앞 → 계동길 → 가회동 11번지 → 가회성당 → 가회동 31번지 → 삼청동 → 내려와서 소리울 게스트하우스 도착</p> | |
| <p>- 북촌투어 : 2014년 9월 13일 토요일 15:00 출발(소요 시간 약 1시간) - 북촌좌담회 : 2014년 9월 13일 토요일 16:00, 소리울 게스트하우스</p> | |

[전시 안내]

권태준 '영수증공' @감고당길



작년 <북촌뮤직페스티벌 2013>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전시프로그램 '영수증공'은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매일 같이 소비하고 무심코 버리는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제품들의 원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답을 찾는다.

◎ 권태준 : 사진과 비디오를 전공한 미디어 예술가 권태준은 작년에 이어 <영수증공> 프로그램을 전시, 흔히 버려지기 쉬운 것들의 재료적 본질 탐구를 통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일시 : 2014 년 9 월 13 일 ~ 14 일
- 장소 : 감고당길 부스 옆

하정웅 Collection_문승근 '무한의 시' @광주시립미술관 서울관



북촌뮤직페스티벌 주최사인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하정웅의 Collection 중, 재일 문승근 작가의 '무한의 시'를 소개

◎ 문승근 : 1968 년경 미술계에 입문, 1980 년대 뜨거웠던 일본 현대미술의 흐름속에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인정받은 제일교포 2 세로, 1982 년 34 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문승근은 전위미술 그룹 구타이미술협회의 영향을 받았으며, 광인식, 이우환, 광덕준 등과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 일시 : 2014 년 7 월 24 일 ~ 9 월 16 일
- 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서울관

[공간 안내]

| | |
|---|--|
| <p>W 스테이지 W stage</p> | <p>글로벌 문화 협업 네트워크 월드컬처오픈 코리아(WCO)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p> |
|  | <p>9/13(토) 20:00 주리스쿤스 21:00 강태환</p> <p>9/14(일) 12:00 한국음악그룹, 월천 14:00 이노경&이상화 17:00 윤아성호 18:00 수플러스</p> |
| <p>소리울 게스트하우스 Hanok Guest House Soriwool</p> | <p>국악을 사랑하는 부부와 거문고, 대금, 피리를 전공하는 세 아들이 만들어가는 한옥 게스트하우스</p> |
|  | <p>9/13(토) 16:00 로버트 파우저 좌담회 17:00 마루</p> |
| <p>카페 오감 Cafe Ogam</p> | <p>대금 명인 원장현의 후진 양성 공간 금현국악원과 한 건물에 자리한 아늑하고 정감 어린 카페</p> |
|  | <p>9/14(일) 15:00 앵드아 15:30 한혜민 16:00 서울기타과르텃</p> |
| <p>갤러리 아트링크 Gallery Art Link</p> | <p>작가, 콜렉터, 대중 간의 만남을 위한 한옥 갤러리 현대미술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공간</p> |
|  | <p>9/12(금) 19:00 <전야제> 아시아안무극앙상블(A.M.E.), 박인혜</p> <p>9/13(토) 15:00 가다프로젝트 19:00 The 광대</p> <p>9/14(일) 15:00 핫산 후자이리 17:00 불세출밴드 19:00 4 인놀이</p> |

| | |
|---|---|
| <p>북촌민예관 Bukchon Heritage Studio</p> | <p>문화재와 컨템퍼러리 아트 퍼니처가 어우러진 한옥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방</p> |
|  | <p>9/14(일) 15:00 김선효 17:00 반(Vann)</p> |
| <p>정독도서관 Jeongdok Public Library</p> | <p>1977년 옛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개관한 도서관 역사 만큼 많은 사람의 추억을 간직한 곳</p> |
|  | <p>9/13(토) 17:00 마푸키키</p> |
| <p>감고당길 Gamgodang-gil</p> | <p>주말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거리 다채로운 버스킹과 거리전시가 열리는 공간</p> |
|  | <p>- 감고당길 1 (거리) 9/13(토) 13:00 전통타악그룹 유소 14:30 크로크노트 15:30 투스토리 17:00 프로젝트 곧사 9/14(일) 12:30 한혜민 13:30 도도 14:30 국악 아카펠라 수(秀) 15:30 멜로우위크 16:30 레이디버드</p> |
| | <p>- 감고당길 2 (무대) 9/13(토) 13:30 타니모션 15:00 아토음악프로젝트 칸(KAN) 16:00 유랑 18:00 <재즈스페셜> 최윤미트리오 + 소울로지 9/14(일) 12:00 마네트, 상사화 14:00 착한밴드 이든 15:00 렘수면상태의 밴드 16:00 땅고 비올레 17:00 아프로-라틴-한 퍼커션</p> |

| | |
|---|--|
| <p>57th 갤러리 57th Gallery</p> | <p>감고당길 입구에 자리한 아담한 갤러리 아티스트 & 스태프 라운지로 사용되는 공간</p> |
|  | <p>9/13(토) 18:00 박경소 9/14(일) 18:00 가민</p> |
| <p>담소정 Damsojung</p> | <p>서울의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p> |
|  | <p>9/13(토) 16:00 담소정 하우스콘서트 1. 이즈미카야 with 타카와 후미히코 2. 양상블 마즈</p> |
| <p>국악사랑 Gugak Sarang</p> | <p>판소리, 춤 등 다양한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체험 공방</p> |
|  | <p>9/13(토) 18:00 국악사랑 가족음악회</p> |

- ※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향후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촌뮤직페스티벌 2014>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